

“바닷물 유통으로 영산강 생태 복원” 나주시 로드맵 수립

민관 영산강위원회 ‘종합계획·연구조사용역’ 점검... 국내외 사례 분석해 최적 방안 마련

나주시가 최종 ‘바닷물 유통’을 목표로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대회의실에서 영산강 환경·생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정책과제 점검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영산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는 매년 녹조와 악취, 수질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되풀이하는 영산강의 생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는 ‘나주시 5대 선도정책 과제’ 중 하나다.

1981년 건설된 목포 하굿둑 개방에 따른 최적의 해수유통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영산강과 영산호를 생명이 살아 숨 쉬던 자연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머리를 맞댄 위원회는 정책 과제 수행 밑그림이 될 ‘영산강 생태복원 종합계획 연구조사용역’ 착수

를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에 기반한 의견 제안, 세부 과제를 검토했다.

연구조사 용역에서는 영산강권역의 수질과 생태 환경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수치모델을 이용한 해수유통 영향 예측,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낙동강 하굿둑을 비롯한 국내·외 해수유통에 의한 하구생태계 복원사례 분석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해수유통 시나리오 수립 시 농경지 염분 침투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예측·분석하고 전문

가 자문회의를 통한 최적의 해수유통안 도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더 나아가 중앙부처·지자체·전문기관·학계·시민단체를 총망라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영산강 생태복원이 자기 대안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민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강, 금강, 낙동강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수유통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과도 연대를 통해 영산강에서 시작하는 ‘4대강 재(再)자연화’를 구체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전승수 영산강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영산호 수변지역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자원’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영산호와 영산강 문제를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지역의 미래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부분적인 해수유통, 통선로 설치, 영산강 수변부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영산강 복원의 대장정을 위해 영산강 유역권 광역·기초 지자체 뿐 아니라 환경·시민단체와 광역 거버넌스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영산강 생태복원이 지역 발전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 백신산업특구 ‘소비자 최고 브랜드 대상’

백신·생물의약품 부문...K-방역 거점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 조성 사업이 소비자 선정하는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백신산업특구 조성사업이 ‘2021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백신·생물의약품 산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2019년에 이어 두번째 수상이다.

정부가 지난 2010년 생물의약품산업단지화순전남대병원 일대를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 지정한 이후 국내 백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화순군은 설명했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연구개발(R&D), 생물의약품연구센터-전남대 임상백신개발센터 ▲전임상시험(GLP, KTR헬스케어 연구소·KTR 동물대체시험센터) ▲임상시험(GCP, 화순전남대병원) ▲생산제조 시설(GMP, 미생물실증지원센터·GC녹십자·바이오 벤처기업) ▲인재양성(전남대 의과대학) 등 백신·생물의약품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갖췄다.

백신산업특구는 지난 2018년 전국 195개 특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지난 2011년 13개였던 화순백신특구 입주 기업은 2019년 27곳으로 늘었으며, 일자리도 2011년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4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백신·생물의약품 산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화순군 제공>

1395명에서 2019년 2346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임상용 백신 생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해 면역세포치료 산업화기술 플랫폼,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화순백신특구내 전남생물의약품연구센터와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전임상과 임상시험용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관심을 모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화순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K-방역, K-바이오 거점으로 성장할 튼튼한 디딤돌을 놓겠다”며 “지역의 풍부한 산림치유 자원과 첨단의료서비스 기반, 백신·생물의약품 등을 토대로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에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흥군, 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공포

김재승 군의원 발의...전국 유일 안중근 의사 사당 보유

전국 유일의 안중근 의사 추모 사당인 해동사가 위치한 장흥군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의 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됐다.

장흥군은 조례 공포로 일제강점기 자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원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발굴·보존 및 기념물 설치, 기념사업 및 유공자 추모, 사료·증언의 수집·관리와 조사·연구,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에 대한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가 지난 1일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장흥 해동사를 찾아 참배했다.

김재승 의원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발굴하고 보존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 장학금 300만원

한국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는 최근 지역의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300만원을 담양군에 기탁했다. <사진>

담양군 농업 발전과 농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900만원을 장학금을 기탁, 지역 후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정승오 담양 농업경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 깊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세열급

“좋은 재판”하는 법원 이미지 심겠다

김상규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장흥·강진 주민들에게 ‘좋은 재판’을 하는 법원 이미지를 심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상규(51)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은 “전혀적인 농어촌 정서를 고려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원장은 “112년 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장흥법원의 상징성을 감안해 청사 재건축과 환경 정비에도 힘쓰겠다”며 “정정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장흥·강진지역 지자체



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출생인 김 지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2003년 사시 45회(연수원 35기)에 합격해 법조에 발을 디뎠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SA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가 돌면서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